

발간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바 있고, 각국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선진 각국은 경제 위기의 극복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전 산업 영역으로의 기술혁신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본, 노동력과 함께 기술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며, 따라서 ETRI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추진과 R&D결과물의 산업내 확산 촉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ETRI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 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의 하나인 공공 R&D 결과물의 조기상용화 추진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ETRI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하고자 “ETRI 기술예고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TRI 기술예고제”는 ETRI에서 개발예정인 기술의 개요, 개발일정, 예상결과물, 기술성, 시장성 및 활용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기업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ETRI기술예고제는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업들이 ETRI 개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내적으로는 연구분야 별로 협력방안 모색,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TRI는 국가경제를 견인할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최적의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R&D 경험의 활용과 IPR관리를 통해 산·학·연 협력연구를 선도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 아젠다를 선도하는 개방형 협동연구(Open R&BD) 플랫폼 구축, 기술 완성도 제고와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신 Eco-System 구축, 그리고 ETRI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신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통한 지식자본의 확충에도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신 Eco-System의 구축을 위해 시장을 반영한 R&BD기획과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ETRI 기술예고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사업화 주체인 기업에게 널리 활용되어, 기업들의 신 사업기회 발굴,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IT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확보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2년도 ETRI기술예고제”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업화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또한 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ETRI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2년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흥남